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bizarre Things》 전시 전경

##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이상하다

### 정찬용 큐레이터 & 박종욱 · 황규민 작가

드넓은 들판을 배경으로 전리품의 목을 움켜잡은 채 기묘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냥꾼>과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닮은 <미의 도상>. 갤러리 THEO에서 진행 중인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bizarre Things》에서 박종욱, 황규민의 작품들은 잔혹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처럼 기이하다.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이상하다”라는 보들레르의 말이 잘 어울리는 이 작품은 지역 청년 작가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낯설과 지역적 한계라는 절절한 현실에서 나온 것이지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시공간과 신체를 표상한다. 한 공간에서 낯설게 어우러지며 둘 만의 케미로 소통하고 있는 그들은 기이한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3월호에서는 이 전시를 기획한 정찬용 큐레이터, 박종욱, 황규민 작가의 유쾌한 대담을 진행했다.

THEO의 신진작가 발굴·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 이후 개최된 2인전이기에 더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 전시 제목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Bizarre things》라고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찬용** 처음 두 작가의 작품을 마주했을 때 문득 보들레르의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이상하다”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전시가 진행 중인 지금까지도 작품들이 지닌 정체 모를 끌림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작품들을 마주한 순간 서울(수도권)에서 주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과는 뭔가 다른 이질감이 느껴졌는데, 아마도 그것은 작가들이 처한 다양한 환경적·물리적 경계가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되는 문화예술의 범주나 패러다임과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점에서 ‘낯선’ 감각이 발현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것은 언제나 낯설기 마련이고, 이어지는 적응의 과정 또한 ‘낯설’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수용되는 과정이니까요. 이러한 가정 하에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보려는 의지를 담아 전시명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라고 지었어요. 이와 함께 전시(작품)를 둘러싼 모든 낯선 감각 혹은 환경 등을 다양한 뉘앙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보들레르의 ‘Bizarre things’와 연결지어 전시 제목을 지었습니다.

**박종욱** 먼저 신진작가 발굴·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전시 제목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Bizarre things》는 새로운 미술사조의 시작이 언제나 평단의 혹평과 대중의 외면을 받았던 사례와 맥락지어 ‘낯설게 하기’ 방식으로 다양한 객관화를 시도한 것이에요. ‘낯설’을 극복하고, 열린 해석이 가능한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박종욱, <사남관>, Oil on canvas, 90.5×116.5cm, 2022

보통 ‘언캐니(Uncanny)’를 시각적 측면으로 접근하기 쉬운데, 색다른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새로운 미술사조나 담론의 시작이 평단의 혹평이나 대중의 외면을 받았던 사례들을 ‘낯설’에서 비롯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이 흥미로운데, 이와 관련하여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정찬용** 신진 작가는 미술계 내에서 ‘적용’이라는 수용의 과정을 거치는데, 작가들에게 서울(수도권) 중심의 ‘주류’에 편승하기를 권하기보다 ‘지역 청년작가’의 정체성과 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통해 ‘정체화’를 돕는 것이 THEO의 신진작가 발굴·지원 프로그램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작가들에게 오히려 ‘최대한 이상한 것’을 요청했죠. ‘이상

함’에서 오는 일종의 불쾌함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고, 불쾌함에서 오는 거리감을 이용해 객관화를 유도했어요. ‘창작과 전시’라는 형상화의 과정을 통해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체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황규민**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나의 작품이 낯설게 보였으면 하는 바람은 없었어요. 작품보다는 ‘나’라는 자신이 낯설게 보이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건 ‘나’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나의 머릿속에서 어색하지 않은 이미지 ‘실험’을 통해 작품을 형상화했습니다. 낯선 작업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서 미완성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낯선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종욱** 처음에는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의 관계에 대한 고찰로 ‘재료’의 변화를 시도했어요. 작업 과정에서 고뇌하는 시간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즐거웠어요.

두 작가님은 대학 동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미술계 내에서 지역 청년작가로서의 느낀 어려움은 무엇이며, 작은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종욱** 미술계는 매우 경쟁적인 환경입니다. 청년작가들은 스스로의 작품을 소개하고 가치를 증명해야 하므로 작품의 완성도와 마케팅 능력이 필요해요.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에서의 활동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죠. 연대는 서로의 작품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성장을 돕는 것입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bizarre Things> 전시 전경

니다. 작은 연대 안에서 네트워크 확장은 또 다른 기회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황규민**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는 미술 생태계를 인지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요즘 미술 생태계는 건조해요. ‘사랑’, ‘우정’, ‘의리’, ‘배신’ 이러한 낱말들이 그리워질 정도로요. 그 와중에 ‘작은 연대’라는 말은 언뜻 ‘의리’라는 낱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는 자칫 학연, 지연으로 비칠 수 있는 모습에 낭만이라는 요소를 더한 느낌이 들어요. ‘건조한 미술 생태계’에 ‘의리’라는 낭만을 더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작은 연대가 필요한 이유예요.

기존의 2인전은 각자 작품을 도열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전시는 서로의 작품이 한 공간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2인전 구상 당시 염두에 둔 것은 무엇입니까?

**박종욱**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의 작품이 결합해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시를 살펴보면 수렵 활동을 하는 장면이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닮은 원시적 이미지 등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몬스터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소굴을 의미하는 던전(Dungeon), 초보자 사냥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전시 디스플레이 등 ‘낯선 환경’을 테마로 하여 관람객들이 익숙한

것에서 기이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황규민** 우리 작업실은 대전에 자리잡고 있어요. 작업실에서 얻는 시각적 경험과 이번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유했던 생각이 이번 전시 공간에 스며든 것 같아요. 전시를 준비하면서 나왔던 이야기 주제는 이미지에 대한 불능감이에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고민을 일정 부분 해소했기에 전시 작품에 자연스럽게 묻어났죠.

이번 전시에서 시각적으로 익숙한 풍경을 낯선 구도와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상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종욱, <산 꼭대기에서는 성수가 흐른다>, Oil on canvas, 130x130cm, 2019



박종욱, <Untitled III>, Mixed media, 16.5x12x10cm, 2015



황규민, <골렘 no.2>, 아크릴 실, 모스 원단, 라텍스, 아일렛, 면 끈, 70x31.5x11cm, 2023

**박종욱** 이번 전시의 대표작 <네 놈들의 씨를 말려버리겠어!>는 익숙한 숲에서 사냥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기묘한 형상들을 날날이 늘어 놓았는데, 이 모습은 이전 전시에서 선보인 <ConKammer> 시리즈처럼 곤충과 날개, 지도 등이 나열되어 있죠. 표본장처럼 늘어선 구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구도와 형상, 표정이 기이해 마치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나 동화 속 인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실제의 풍경은 원근감이 있지만 작품 속의 풍경은 그렇지 않기에 낯설고 두려운 장면처럼 느껴지는 것인지도 몰라요.

**신체를 독특한 비율과 기법, 재료를 사용해 형상화한 것이 이색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고 기이함을 느끼게 하는데, 어떤 기법과 재료를 사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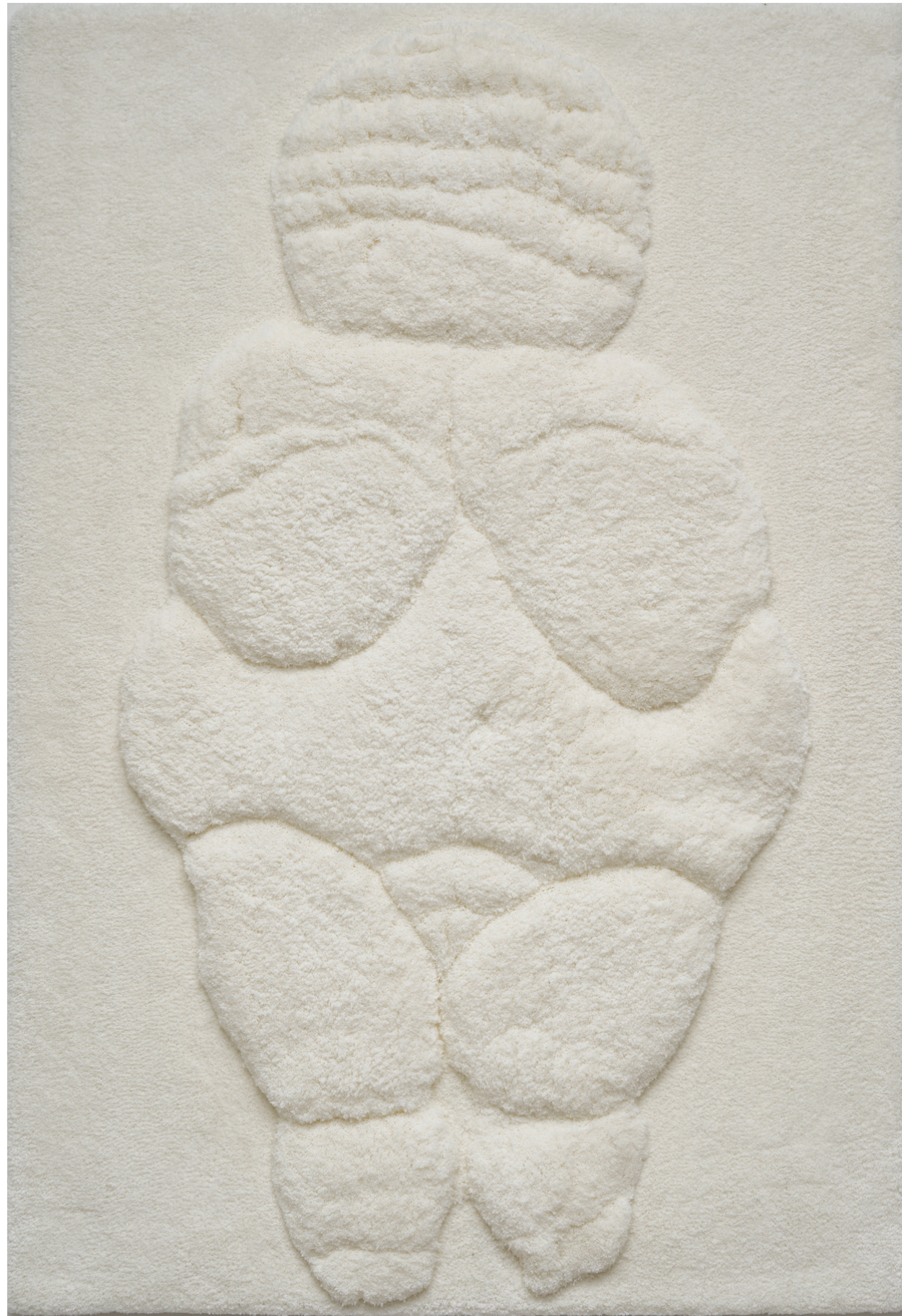
**황규민** 터프팅이란 과정을 통해 작품을 만들었어요. 카펫이나 러그 등을 만드는 기법인데요, 털실이 기본 재료입니다. 단순한 공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보통 털실 길이를 다르게 해서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털을 깎는 행위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 아일렛으로 꿰매 거친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혼돈(카오스)에서 질서(코스모스)로 향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 흥미롭네요. 박종욱 <네 놈들의 씨를 말려버리겠어!>에 등장하는 (목이 부은) 새를 사냥하는 것은 고뇌(혼돈)를 제거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새는 고뇌를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충구를 겨냥 맞춰야 하는 목표(goal)이자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이 두꺼운 새는 자유롭지 못해요. 사냥은 일종의 몰입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원초적 행위예요. 부자연스러운 새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자유(질서)**

를 얻는 행위죠. 작품을 통해 욕망하지만 닿을 수 없는 고뇌를 표현했어요. 또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신체'라는 것이 다양한 예술적 담론과 정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닿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 '감각' 등을 표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고심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황규민** 주술적이란 단어는 욕망을 담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인 오독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작품을 만들면서 선사시대의 신체 조각들을 포르노물로 생각했죠. 만약 그때였다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포르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이처럼 예술적 담론을 오용(?)함으로써 닿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을 신체의 형상으로 나타냈어요. 축적적 욕망을 재료적 물성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황규민 <나의 도상> 아크릴 질 나무 판넬 뽀스원단 리버스 1168x83cm, 2022

그동안 한정된 도제 방식으로 교육받은 미술계에 지속적인 물음을 던지며 예술적 방향성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의 변화가 엿보입니다. 변화의 계기는 무엇입니까?

**박종욱** 매년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드로잉 작업 <창공>과 석회암으로 깎아 만든 <조각 시리즈 I, II>입니다. 세 작품 모두 '파리 이용노 레지던스'에서 만든 작품으로 작위적이지 않은 것이 공통점이지요. 창작의 고민이 많던 시기, 타국에서 생활은 이방인처럼 낯설었지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집중하면서 긴장이 서서히 풀렸어요. 작업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번 전시 작품에서는 그 변화의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감각하고자 잠식되어가는 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황규민** <콜랩> 시리즈를 보면 전체적인 윤곽은 원시 조각들을 연상케 해요. 하지만 아웃라인 안에 부조된 모형은 현대적 신체의 부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액세서리 같은 신체라고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 과하게 몸을 키우거나 가꾸기도 하고, 좀 더 풍만한 머리를 보여주기 위해 파마(permanent)도 해요.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귀도 뚫지요.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 우리는 순간이나마 우리 몸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론 대형 스포츠브랜드의 슬로건인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처럼 불가능을 뛰어넘기 위해 무리한 행동도 하죠. 우리의 신체는 욕망이 지나치면 스펙터를 속으로 잠식되고 말아요. 액세서리화 된 신체, 감각하기 위해 잠식하는 몸을 통해 기이한 형태로 변해가는 몸, 과도한 욕망이 빚어낸 파괴적인 신체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익숙한 일상에서 문득 미시감을 느끼거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혼돈과 불안함이 심화될 때 익숙한 것들이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상이 최근 전시(미술작품)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종욱** 현재 우리가 겪는 사회적, 경제적 혼란과 불안이 미술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미술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개인적 감정과 경험을 담을 수 있는 직접적인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갖고 있으니까요. 전시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은 특정 계층이 즐기는 고상한 취미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 각자 고민과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사회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니까요.

**황규민** 대전환기의 다양한 징후와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꽤 둔감한 편이에요.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문득 알렉세이 유르차의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이라는 책 제목이 생각나요. 사라지는 이유는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후 작품 활동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박종욱** 상반기에는 단체전과 아트페어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하반기에는 지난해 이용노 미술관에서 함께했던 레지던스 작가들과 함께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재료' 자체에 집중하여 매체연구를 했다면 다음 전시에서는 '나'에 대해 좀 더 깊이 성찰해온 과정을 작업으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황규민** 평소 이미지나 '회화의 불능감'에 대해 고민이 많은 편이에요. 즉물적으로 느껴지는 평면·입체 작업 등 다양한 조형 실험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정찬웅**  
중앙대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에 재학 중인 정찬웅 큐레이터는 창작공간 그날 갈 수 없잖아 공동대표, 유아트스페이스 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갤러리 THEO 아시스턴트 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박그림 《虎路, Becoming a Tiger》, 박종욱, 장승근, 하승완 《서울상경작전》 등을 기획했으며 김대운, 김지용, 김태연, 김효준, 박그림, 박종욱, 장경린, 장승근, 하승완, 황규민 《꽃밭에는 꽃들이》 Flowers》, 하승완 개인전 등을 열 예정이다.



**박종욱**  
2020년 개인전 《Wounder Kammer》으로 주목을 받은 박종욱은 《dill(epine) amas》, 《인간적인 인간》, 《소제등 상상바라크스》, 《서울상경작전》 등 국내외 다양한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2년 파리 이용노 레지던스(파리), 청년작가지원전 NEXT CODE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갤러리 THEO에서 황규민 작가와 2인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Bizarre things》를 진행 중이다.



**황규민**  
2020년 개인전 《RE: RE, art space 128》으로 주목을 받은 황규민은 2018년 단체전 《느슨한 연결》에 참여했으며 현재 갤러리 THEO에서 박종욱 작가와 함께 2인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Bizarre things》를 통해 개성 있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